

미래차·수소 협력 동반자, 일본 도레이 사(社) 5,000억 원 투자계획 발표

- 산업부·경상북도·구미시·도레이 첨단소재 분야 투자협력 양해각서(MOU) 체결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은 5월 22(수) 콘래드 서울 호텔에서 경상북도, 구미시와 함께 일본 도레이(Toray) 사(社)의 첨단소재 생산시설 구축과 관련한 투자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양해각서는 도레이 사(社)가 경북 구미시에 2023~2025년간 총 5,000억 원을 투자하여 탄소섬유, 아라미드섬유, 정보통신(IT)소재용 필름, 이차전지 분리막 등 생산시설을 구축하고, 산업부와 경상북도·구미시는 금번 투자계획 이행을 위해 필요한 재정·행정적 지원을 제공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탄소섬유 분야 세계 1위인 도레이 사(社)는 1965년 한일 국교 수교 이전인 1963년부터 섬유 분야에 처음 진출한 이래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60년간 누적 투자금액이 5조 원에 이르고 4천여 명의 고용 창출에 기여한 대표적인 외국인 투자 모범 사례이다. 지난 4월에 안 장관 방일 기간 중 도레이 사(社)가 아라미드 섬유 제조시설 투자를 확정하고 투자신고서를 제출한 데 이어, 한 달 만에 도레이 사(社)와 대규모 추가투자 계획에 대한 투자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진전을 이루었다.

안덕근 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금번 투자가 전기차, 배터리, 수소, 디스플레이 등 미래 신산업 분야에 사용되는 핵심 소재 생산기반을 국내에 확보하여 공급망 강화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도레이 사(社)가 글로벌 통상 네트워크를 보유한 우리나라를 아시아 수출 거점기지로 활용할 계획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평가하였다.

도레이 사(社)는 이번 투자를 계기로 현대차 등 국내기업과의 협력관계를 강화하며 차세대 제품 연구·개발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며, 산업부는 금번 투자의 성공적인 이행과 우주항공·방산 등 협력 분야 확대를 위해 다각적으로 지원해나갈 계획이다.

담당 부서	투자정책관	책임자	과 장	엄재영	(044-203-4080)
	투자유치과	담당자	서기관	지민정	(044-203-4082)

1. 행사개요

- 일 시 : '24. 5. 22(水) 16:10~16:40
- 장 소 : 콘래드 서울 호텔, 스튜디오 6번방(6F)
- 참석자
 - 산업부 : 안덕근 장관, 투자정책관, 투자유치과장 등
 - 지자체 : 이철우 경북지사, 김장호 구미시장, 김영식 의원, 구자근 의원
 - 도레이 : ^日오야 미츠오 사장, 카와무리 부회장, 큐노 부회장
^韓이영관 도레이첨단소재 회장, 김영섭 도레이첨단소재 사장

2. 세부계획

시 간		주요 내용
16:10~16:15	05'	참석자 소개
16:15~16:20	05'	회사 소개 및 투자계획 브리핑
16:20~16:30	10'	모두발언
16:30~16:35	05'	투자양해각서(MOU) 서명
16:35~16:40	05'	기념촬영